



◀4

“광주시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공동체로 만들겠습니다”

##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그를 만나려면 광주시민의 생활현장으로 찾아가라.” 그렇다. 고재유 광주광역시장의 일상은 이렇게 시민의 생활 속에서 시작된다. 열심히 일하다는 것, 그것이 곧 건강의 첨경이라는 고시장은 작은 일에 성실한 자가 큰 일에도 성실하다는 신념으로 광주시민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일 정도로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는 사람이다.

### ▲ 2천년 대 광주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계신 사업 현황과 청사진이 있으시다면?

지난해에는 국가적 경제 위기와 각 부문에 걸친 개혁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 무궁한 발전 있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 기반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시의 독자성을 살릴 수 있는 '광산업'과 '문화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마련, 「지랑스런 민주 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가 지향하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시민의 뜻을 모으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착실한 준비를 갖추어 나간다면 우리 고장 광주의 미래 모습은,

- 지식 기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정보 도시」
- 삶에 멋과 여유가 있는 「문화 예술 도시」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녹색 환경 도시」
-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인본 민주 도시」
- 국제화를 지향하는 「국제 중심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청사진을 위한 첫걸음인 금년도 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올해는 광산업을 비롯한 21세기 지식 정보화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 도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산업 육성 지원단'을 중심으로 부지 매입과 지원 시설 건립 등 기반 조성 사업에 착수하고 광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산·학·연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과학 기술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예향의 전통을 계승하고 격조 높은 문화 예술 육성

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관광산업의 개발과 월드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창동 유적지 복원, 의재 미술관 건립 등 역사와 전통 보존을 위한 문화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우리 지역의 풍부한 문화 예술 자원을 미래 문화 산업에 접목·발전시켜 문화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1세기형 국제적 복합 테마 파크와 광주호 주변 시가 문화권 조성 사업, 2002년 월드컵 대회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친화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의 안식처로 가꾸어 나가고, 영산강 수질 보존을 위해 하수 처리장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또 많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정수장과 상수도 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주민 공모에 의해 선정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공사도 금년에 착공하여 피해가 전혀 없는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에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 제2순환도로, 도심 철도 이설, 시청 신청사 건립 등 시민 생활 편익과 직결된 계속 사업을 마무리하고 교통 정체가 우려되는 구간은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내실 있는 사회 복지 시책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복지 공동체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로당 및 차대 요양 시설과 병원을 건립하여 노인들이 노후 생활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할 것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하여 정보 문화 활동 공간

을 확충하고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를 더욱 확대하며, 5.18 기념 문화관 건립 등 기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5.18의 의미 선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광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정책 방향은 ?

우리시는 금년도 복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최저한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에서 「전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득, 보건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 생활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사회 복지 서비스를 보다 충실히 하는 것은 물론 전 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산적 복지의 강화와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자활·자립 기반 조성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기 실현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복지 서비스 관리 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복지 시책의 결정 및 운영 과정에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복지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역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동 서비스 등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 부문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 선진형 복지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자 기업, 종교계, 지역사회 등 민간 분야의 복지 기능을 확대하여 복지시설 운영 과정에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운영상 투명성과 합목적성도 높여 갈 것입니다.

넷째, 그 동안 가족 계획 사업이나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 기능을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 제공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는데, 보건 교육,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정신 보건 사업, 방문

보건 사업 등을 증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광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과 현황 ?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보건 복지 시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암 및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치료하고 저소득 암 환자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 진료를 실시하며, 의료 기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거동 불능자, 노인 등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 진료, 보건 교육, 가사 도와주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 제공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 제공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건강한 보건 환경을 조성해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역학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어 허여 전염병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 해충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

여 소독 방법을 연막 소독에서 분무 소독으로 전환하여 취약 지역 위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 시설 등 위생 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건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여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특히 전국에서 앞서가는 정신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신 질환자의 발견, 등록, 상담과 재활 그리고 정신 건강 증진 등 정신 보건 사업의 실시 기반을 조성하고 정신 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정신 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환자 입·퇴원, 처우 개선 등의 심사와 정신 보건 정책에 자문하는 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 요 양시설, 정신병원 입원, 수용에서 주간 치료와 낮 병동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환자의 기능 회복과 함께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는 등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부터 정신 보건 인력 지원을 50명을 기 배출하는 등 정신 장애인과 차매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 약 력 >**

◎ 학 력

광주시범학교 졸업  
 조선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 경 력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사

조선대학교 법학과 강사  
 광주고검 사건과장  
 광주지방검찰청 부이사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현 광주광역시장

◎ 사 회 활 동

녹조근정 훈장(95), 풀뿌리민주대상(96)  
 우송장학회장  
 전국 개발 제한 구역 개선 공동 회장

지지와 관리를 하도록 하여 앞으로도 년 50명씩 4년간 200명을 육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간 정신 의료 기관과 연계한 지역사회 정신 보건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민과 보건 의료 전문가 등이 참가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보건 의료 계획(1999-2000)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에 다시 환류하는 보건행정을 펼쳐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 오신 소신이나 좌우명은 ?

"작은 일에 성실한 자가 큰일에도 성실하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거대한 폭포가 되듯이 작고 사소한 일이라 무시하지 않고 매사 성실하게 추진하다 보면 큰 일도 거뜬히 처리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 건강을 위해 하시는 일이 있다면 ?

가끔씩 등산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뛰어 다닙니다.

생활 현장 방문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곳 어디에나 즐겨 찾아가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열중하다 보면, 체력을 증진하는 데 보탬이 됨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여러모로 유익한 것 같습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하는

일이지만,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민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점에서 일을 할 때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활기차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지금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만, 우리 지역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있어 새 천년이 시작된 금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 생활 필수 시설과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충, 복지 수요 등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시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가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선진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온 시민이 더욱 심기일전하여 열과 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항상 시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당면한 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희망의 21세기 빛의 도시 광주 건설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광주 발전을 위해 다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광주광역시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72

